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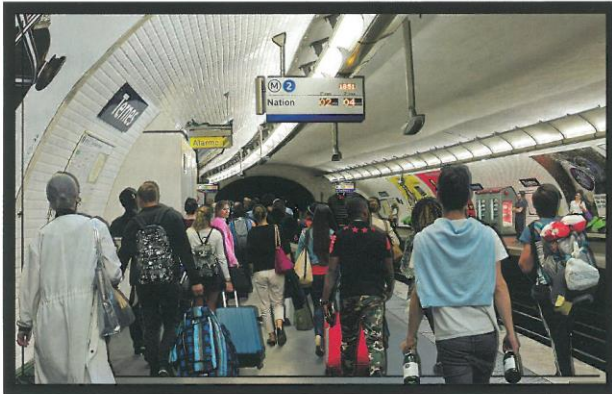
SPECIAL FEATURE

Korean Artists Today 100+16

2016년 새해가 밝았다. Art는 1999년 창간 이후 지난 17년간 한국미술의 역동적인 흐름과 궤를 함께 해 왔다. 20세기 미술의 유산을 남김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발 빠르게 포착하며 한국미술의 ‘안과 밖’을 종합무진해 왔다. 이제 Art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2016년의 문을 연다. 이번 신년호를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 특별호로 기획, 작가들의 활약상을 토대로 지난해의 ‘미술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Korean Artists Today 100+16’은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이 두드러졌던 한국 작가 116명을 선정, 작가의 최신 약력 및 작품 화보를 정리한다. 여기에 주요 평론의 일부를 세심히 발췌, 소개해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이 발췌문을 토대로 편집부에서 뽑아낸 작품의 ‘키워드’를 글머리에 심는다. 특별호 제목의 숫자 ‘100+16’은 20세기의 ‘100년’에 21세기의 ‘16년’을 더한 것이다. 본지가 주목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만남’을 상징한다. 선정 작가의 범위는 2015년에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부터 주요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로 정했다. 또한 작가들의 개인전 장소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국내 지역 미술관 및 전시공간부터 해외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족적을 세심히 돌아봄으로써 지역별 균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원로작가부터 중견, 중진작가를 주축으로 하되, 그동안 미술계에서 맹활약한 30대 중후반 이상의 작가까지 고른 연령 기준을 세웠다. 물론 Art는 30대 이하 신진작가들의 활약에도 늘 주목하고 있다. 향후 별도의 기획을 통해 신진작가들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마당’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잡지의 역할과 기능도 변한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고, 종이 잡지에 대한 열광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Art는 잡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온라인의 막대한 정보량과 빠른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종이매체만의 느리고 깊은 호흡을 늘 고민한다. 지면 위에 지나간 역사를 각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것.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앞으로 Art는 매해 신년호를 이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로 꾸릴 것이다. 매년 이 특별호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그려 낸 한 해의 미술지형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란다.

정연두 Yeondoo jung / b. 1969

서울대 조소과 졸업 및 센트럴 세인트마인컬리지 수료, 골드스미스 컬리지 졸업 **Solo Exhibitions** 프랑스 MAC/VAL(2015), 스톡홀름 살로트룬드갤러리(2015), 대구미술관(2014), 삼성미술관 플라토(2014) 등 **Group Exhibitions** (거짓말의 거짓말: 사진에 관하여)(도탈미술관 2015), (아시아 현대사진: 왕칭송·정연두)(대구미술관 2014) 등 **Awards**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08), 올해의 작가상(2007) 등 **Residencies** MAC/VAL 현대미술관 레지던시(2015), 미토아트센터 레지던시(2013) 등 **Current Post**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Address** www.yeondoojung.com



위 · <D'ici et d'ailleurs? Guy> 사진 콜라주, 사운드 64×104cm 2015
아래 · <D'ici et d'ailleurs? Catherine> 사진 콜라주, 사운드 64×104cm 2015

실제의 풍경, 가상의 무대 정연두의 사진에서 발견되는 순진함은 가히 놀라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그들에게 꿈이 실현된 모습의 사진을 만들어 준다던지, 아이들이 그린 그림 속의 꿈을 그대로 시각적으로 연출해서 사진으로 담은 등의 일들은 입꼬리가 잠시 올라가게 할 정도로 단순하고 허술해 보이기까지 하다. <로케이션>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더욱 더 강조된다. 전경에 배치된 무대소품들은 갖 칠이 마르기 시작하는 합판들임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심지어 <로케이션 16>에서는 주어진 풍경의 바닥에 단지 천을 깔아놓음으로써 배경을 탐-사실화한다. 바닥에 깔린 이 천의 가장자리를 보고 있노라면 이 사진이 연출사진이 아니라?일종의 퍼포먼스에 대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정연두는 전문적인 사진가로 출발한 작가가 아니다. 조각을 전공한 그가 주된 매체로 사진을 다루는 것에 대해 간혹 경이로움을 표시하는 이들이 있다. 조각과 사진 간에는 사실상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연두의 사진은 조각처럼 사물들의 위치와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물론 그의 작품 속에서 피사체로서의 풍경과 원근법적 투시,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프레임과 관객의 시선이 놓이는 직렬적 배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진적 구조가 가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작가가 그 공간 안에 남겨놓은 신체적 제스처의 흔적들이다. <로케이션>이 허구적 연출효과를 위한 조작된 이미지라기보다는 그것들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기록의 성격을 띠고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서 기록되는 것은 풍경과 풍경이 일으키는 상상, 그리고 그것을 가시화하기 위한 퍼포먼스와 그것을 사진으로 남기는 제스처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이다. / 유진상(계원예술대 교수)